

건강 칼럼

두려움에 충치치료 안 받으려는 아이, 도움될 수 있는 치료는?

치아는 성장기에 수년에 걸쳐 20개의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된 후부터 생을 다할 때까지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잇몸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치과 진료다. 이러한 이유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날카로운 치료 장비 소리는 물론 특유의 소독 냄새로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린 시절 부정적인 기억이 각인되면 성인까지 이어져 일정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공포증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두려움 때문에 충치 등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미룰 시 병증이 악화되기 쉽고 더 나아가 간단한 치료가 가능한 치아를 오랜



유 은 규

강서치니언치과 원장

기간 치료해야 하거나 발치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소아 시절의 치료 경험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어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치료가 공포로 다가가지 않도록 심경을 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진정치료는 소아 환자에게 나타나는 치료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긴장감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

다. 대표적인 진정치료로 웃음 가스가 있다.

웃음 가스는 이산화질소와 산소를 비율에 맞게 혼합한 것으로 치료 전 소아환자에게 주입해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치료 동안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켜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산화질소는 마취성이 있어 치과 치료는 물론 간단한 외과 수술 시 마취에 활용된다. 독성이 약하고 호흡을 통해 배

출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회복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치료가 공포로 다가가지 않지만 아이들의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에게 치료를 강압적으로 진행할 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어 향후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병원 선택 시 소아환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치료법을 두루 갖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곳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설

전북 도내 폐교 방치 심각

전북 도내의 초, 중, 고 등 각급 학교의 폐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폐교 문제가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이다.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농어촌과 산촌 등에서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라북도의 폐교는 4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방치되고 있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폐교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안의 대수 초등학교는 지난 2006년 문을 닫은 뒤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최근에서야 전북 교육청이 나섰다. 30억 원을 들여 이곳을 전통 한지 체험 시설로 조성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이곳은 폐교가 되면서 숲이 우거졌다. 흥하게 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한지 체험관이 들어섰다. 그 뒤 마을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한지뿐만 아니라 VR, 메타버스 같은 체험 시설을 접목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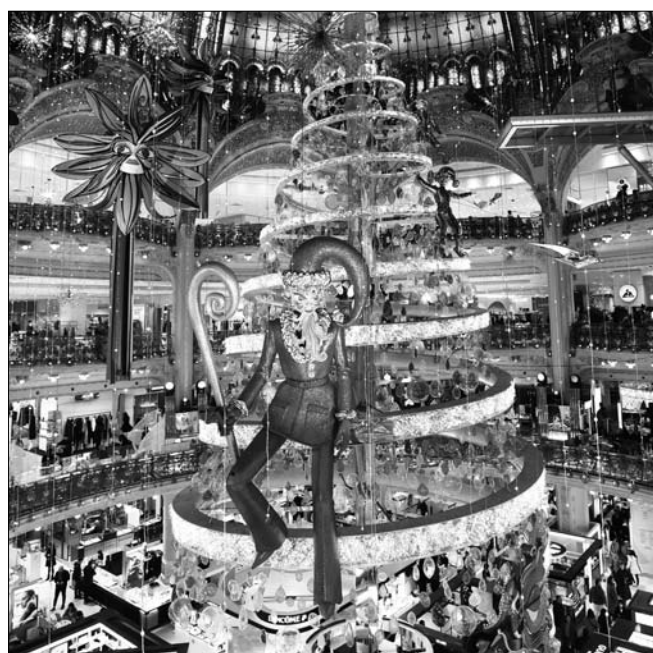
특히 운영 과정에 있어서 부안에 있는 다양한 지역 주민과 강사진들이 다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라북도의 폐교 42곳 가운데 12곳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놀리고 있다.

교육청이 교육용으로 자체 활용하거나 민간에 임대해 준 폐교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자체 활용한다고는 했지만 관리 등 운영이 미흡한 폐교도 많이 있다. 폐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임실군 관내 폐교 2곳의 매각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폐교 활용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폐교 활용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디자이너 빌모랭이 꾸민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2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리파예트 백화점에 여성관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돼 있다.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샤를 드 빌모랭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동화적인 상상을 바탕으로 이 백화점 곳곳을 특별하고 꿈같은 장소로 꾸몄으며 여성관의 역대급으로 화려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그 중 백미다.

미 월마트 총격 4명 부상, 총격범 스스로 목숨 끊어



지난 20일(현지시각) 미 오하이오주 비버크리크 월마트 총격 현장에 경찰이 모여 있다. 경찰은 20세 남성이 월마트에 들어와 총격을 가해 4명을 다치게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태원 헬러윈 축제 갑론을박

이태원 헬러윈 축제를 놓고 논란이 많다. 추모 1주기에 축제를 즐기러 가는 것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용산구는 올해도 축제 계획을 마련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반면 유족들과 상인들 상당수는 추모와 상생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예전처럼 이태원을 찾아주는 게 좋다고 한다. 이들은 추모와 헬러윈 문화는 공존해야 하고, 그것이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길이라고 말한다.

150명이 숨진 참사의 원인은 헬러윈 축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헬러윈(Halloween) 축제는 무시무시한 복장으로 변장을 한 가장무도회를 연상한다.

미국에서는 헬러윈 축제 때 소비와 지출이 크리스마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헬러윈 축제의 역사는 2,000년을 훨씬 넘는다. 헬러윈은 아일랜드 켈트족의 '삼하인'이라는 의식에 서 비롯됐다.

삼하인은 죽음의 제왕인 사편을 섬기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성인(聖人)의 날 하루 전날인 10월의 마지막 밤에 온갖 요정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영(靈)의 세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날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다.

이때 사용된 것이 변장과 행진, 그리고 불이었다. 사람들은 악마나 도깨비처럼 변장을 하고 거대한 화투불 있는 곳까지 행진했다.

그곳에서 가지고 간 물건을 하나씩 꺼내 태웠다.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에는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됐다. 축제를 즐기면서 이곳 추모 공간에서 함께 기억하길 바랄 뿐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